

수석합격기
[제55회 행시 행정직렬 전체수석합격]

“열심히 하는 사람
수보다 합격하는
사람수가 더 많다”



이영희

- 1984년 6월 생
- 김천여자 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대 졸업
- 제55회 행시 행정직렬 전체수석합격

I. 들어가며

발표전날 내내 초조해하면서 잠을 못 이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전화가 왔을 때도 “제가요?”하고 반문할 정도로 수석이라는 영광이 저의 일이 될 거라고 생각지 못했는데, 아직도 이게 현실인지 실감이 잘 나지 않습니다.

공부하기 싫을 때, 의욕이 없을 때 합격생들의 수기를 읽으면서 ‘나도 이 분들처럼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쓰는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도 ‘이 사람도 합격했는데 나라고 못할 거 없다’는 자신감을 가지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쓰게 될 공부방법이나 생활방식에 대한 내용은 저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므로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아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분들의 합격수기와 비교해서 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방법이 있다면 취사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II. 공부 방법

1. PSAT

(1) 1차 공부 기간

저는 1차에서 떨어져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PSAT 공부를 여유있게 할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1차 시험이 2월 연제인지에 따라 PSAT 공부 시작이 유동적이기는 했지만, 평균적으로 두 달 정도는 PSAT에만 투자했습니다. 1차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2차 공부를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2차 공부는 3순환 시작 때부터 더욱 집중하자는 마음가짐으로 임했습니다.

(2) 구체적인 공부방법 ; 기출문제, 학원모강, 스테디

1) 기출문제 분석

기출문제를 처음 풀 때는 현재 내가 어느 수준인지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PSAT을 다시 보았을 때, 각 영역별로 점수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보완해야 할 파트를 파악했습니다.

그 후 기출 문제를 꼼꼼하게 분석하였습니다. 방식은 전체적으로 어떤 유형의 문제들로 40문제가 구성되는지 보았습니다. 이를 연도별로 비교하여 최근에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유형이 어떤 것이며, 따라서 앞으로 어떤 유형의 문제가 더욱 중요해 질것인지를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분석은 제가 잘하지만 많이 출제되지 않는 부분과 자주 틀리는 유형인데 중요해 지고 있는 부분을 구별해줌으로써 어떤 문제를 더 신경써서 보아야 할지를 알게 해주었고, 모강을 풀 때 버려도 될 문제와 잘 챙겨줘야 할 문제를 가려주는 안목을 키워주었습니다.

2) 학원 강의

PSAT 공부를 처음 시작 때는 기본 강의를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공부 방식 등을 배우는데는 유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 후에는 영역별로 진행되는 모강을 신청해서 강의는 듣지 않고, 문제만 풀었습니다. 이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실전과 비슷한 환경(교실같은 강의실, 모르는 사람들, 정확한 시간체크등)에서

문제를 풀면서 적절히 긴장하고, 실전처럼 연습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모강 문제는 채점 후 틀린 문제나 맞았지만 중요한 문제를 중심으로 오려두고, 잘못된 사고가 교정될 때까지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보았습니다.

3) 스테디

PSAT 공부를 할 때, 문제 풀이 방법이나 문제 자체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이 도움이 되었다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그 방식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풀이 방식을 스테디 하지는 않았습니다. 혼자서 생각하고, 논증 혹은 추론 하는 사고력을 기르는 것이 저에게는 더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스테디는 각자 본인이 풀 문제를 가져와서 시간만 맞추어 풀고 가는 것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스테디를 하실 지는 본인 스타일에 맞춰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제2차공부

(1) 과목별 공부법

1) 경제학

① 교재, 강의 ; 교과서(이준구저, 김경수-박대근저, 정운찬저), 서브(미시, 거시Zip) / 강의 (황종휴, 김진욱)

경제학은 제일 어려워했던 과목이었기 때문에 처음 공부할 때부터 순환강의를 계속 따라가면서 공부했습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했을 때는 이준구 교수님의 미시경제학, 김경수-박대근 교수님의 거시 경제학, 정운찬 교수님의 거시 경제학 교과서를 3회독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수험서를 보면서 내용을 정

리하고 암기하였습니다.

문제는 기출문제와 학원 모의고사를 중심으로 풀었습니다. 학원모의고사나 강의 중에 나눠주는 자료에 중요한 교과서의 연습문제나 기타 책의 문제들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따로 책을 사서 보지는 않았습니다.

② 답안 작성

경제학은 목차 구성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경제학은 명확한 정답이 있는 과목이었고, 문제를 풀어서 정답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문제에서 명시적으로 묻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쓰자는 생각으로 답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다만, 그래프와 수식, 간략한 함의 정도는 꼭 들어가도록 답안을 구성하였습니다.

2) 행정법

① 교재, 강의 ; 교과서(홍정선저, 김동희저), 서브(김정일 요론) / 강의(김정일, 성봉근)

행정법은 전공과목이기는 했지만 내용이 어려웠기 때문에 학원 강의를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순환강의를 따라갔고, 작년부터는 3순환을 중심으로 최신 판례나 학설 경향을 파악했습니다.

학교 공부를 할 때 김동희 교수님의 책을 봤고, 수험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 홍정선 교수님의 책을 2회독 했습니다. 교과서로 정리하기가 힘들어서 김정일 선생님 요론으로 정리를 하여 그것으로 계속 반복해서 암기했습니다.

② 답안 작성

행정법은 띄어 쓸 칸이 없을 정도로

많은 내용을 써야하는 과목입니다. 목차가 세분화되기 때문에 더욱 남겨둘 줄이 없었습니다. 목차구성은 논점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하였습니다. 다른 점은 특별한 것이 없지만, 신경 쓴 점은 “논점의 정리”에서 근거 법조문이 드러나도록 썼고, 핵심 논점이 파악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또한 주요한 판례 문구도 비슷하게 쓰려고 따로 암기하였고, 결론 부분에서는 문제지에 나와 있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문장을 구성했습니다. 예컨대, ‘갑이 제기한 허가철회에 대한 취소소송은 적법한가’라고 문제가 되어 있으면 이에 대구되도록 ‘~을 근거로 원고적격을 충족하고, ~이라는 점에서 대상적격이 충족되며, 다른 소송요건도 모두 갖춘 것으로 보이는 바 갑이 제기한 허가철회 취소소송은 적법하다’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3) 행정학

① 교재, 강의

행정학은 양도 많고, 스스로 체계가 잘 잡히지 않아서 어려웠던 과목이었습니다. 교과서를 읽지는 못했고, 수험서는 신림동에 있는 모든 강사의 책이나 자료를 보았을 만큼 갈피를 못잡고 지나치게 양만 늘려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부터는 강제명 선생님의 요약집 프린트로 내용을 정리하고, 강의를 따라 가면서 논리적인 흐름을 파악했습니다. 수업시간에 나눠주시는 논문이나 다른 분들께 받은 논문을 읽고 쓸 부분만 프린트 사이사이에 필기해 두고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② 답안 작성

목차를 세분해서 구성하였지만, 부제는 달지 않았습니니다. 요약해서 키워드로 부제를 달 자신도 없었고, 그 시간동안 내용을 충실히 쓰자고 생각해서 서론과 결론에 부제를 달지 않고, 세부 목차는 키워드로 썼습니니다.

학원 강의 때 모의고사를 치거나 스터디를 하면서 한번 써본 내용을 혼자 공부할 때, 예시답안과 교재, 논문을 참고해서 다시 목차를 구성하고 답안을 새로 완성하는 연습을 반복했습니니다.

4) 정치학

① 교재, 강의 ; 교과서(정치학의 이해), 서브(강제명저를 바탕으로 직접 작성) / 강의(강제명)

정치학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가장 막막했던 과목이었습니니다. 일단 정치학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강제명 선생님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손으로 쓰면서 요약했습니니다. 이렇게 정리해둔 것을 올해까지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니다. (저는 제가 쓴 글씨를 보면서 공부하는 것이 편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지만, 사람에 따라 비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에 시중에 나와 있는 서브에 정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니다.)

또한 수업시간에 필기해주신 것을 따로 정리해두었고, 순환강의가 돌아갈 때마다 덧붙여 써가면서 핵심 키워드를 연결해서 문장을 만드는 연습을 하였습니니다.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방법대로 혼자서 중얼중얼 문장 만드는 연습을 하면

서 암기를 하였습니니다.

② 답안 작성

정치학은 많은 문제를 풀기보다는 한 강의의 순환 문제를 쫓 따라가면서 내용을 이해하면서 쓰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생각을 많이 하면서 쓴 과목이기도 했습니니다. 어떤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것인지 모호한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얇은 저의 지식을 믿기보다는 나와 있는 예시답안을 중심으로 그대로 써보려고 노력했습니니다.

정치학도 행정학처럼 한번 시험 친 문제를 혼자서 다시 완성해나가는 것을 반복하였습니니다.

5) 정보체계론

① 교재, 강의 ; 교재(강제명 저), 강의(강제명)

정보체계론은 1차 치기 전에 이원강 선생님 강의를 한번 들었고, 강제명 선생님 책으로 서브를 만들었습니니다. 이를 바탕으로 3순환 때부터 강의를 따라가면서 공부했습니니다.

정보체계론이 원래 양도 적고, 행정학과 접치는 부분이 많아서 크게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습니니다. 다만, 선택과목이 배점은 낮지만 저에게는 경제학 점수를 만회해야하는 중요한 과목이었기 때문에 정보체계론 순환을 돌릴 때는 정보체계론에만 집중하여 공부했습니니다.

② 답안 작성

정보체계론도 행정학과 같은 방식으로 답안을 구성하였고, 한번 쓴 답안지를 다시 완성해서 공부했습니니다.

III. 생활 측면 ; 공부시간

PAST만 공부했던 12월부터 1차 직전까지는 아침 8시부터 밤 10시 까지 공부하였습니다. 실제 시험처럼 시간을 맞춰서 풀고, 그 날 푼 문제를 풀이하고, 기타 내용을 보충한 다음 일찍 잤습니다.

3순환 때부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아침 8시부터 밤12시 반까지 공부하였습니다. 밥먹고 산책을 갔다가 오는 시간도 있었고, 중간에 낮잠을 자기도 하였기 때문에 대략 평균적으로 13시간 정도씩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수업을 듣거나 스터디한 시간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혼자 공부했던 시간은 대략 8-9시간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일요일에는 수업이나 스터디가 없었기 때문에 오전까지 늦잠을 자고 오후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6-7 시간정도 공부했습니다.

IV. 나가면서

지금까지 '저는 이렇게 하였습니다' 라고 쓴 내용들을 일종의 자랑으로 보실 수도 있고, 부족한 제가 너무 과장되게 비취질까 걱정도 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서 이런 방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본인에게 어떨지를 생각해보는 기회로 여겨 주신다면 오래 고민해서 수기를 쓰고 있는 저에게 큰 기쁨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강사분께서 이렇게 말씀 하셨던 게 생각납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 수보다 합격하는 사람수가 더 많다". 이 말의 의미는 합격한 사람들 중에서 소수는 열심히 하지 않았지만 합격한 사람도 있다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면 반드시 합격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부하기 싫고, 포기하고 싶을 때 마다 이 말을 생각하면서 성실히 생활하려고 노력하신다면 여러분들도 꼭 합격하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 행정학 시험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열심히 하셔서 2012년 합격자 명단에서 뽕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으로 저를 믿어주는 사랑하는 가족들, 성실한 모습으로 모범이 되어주신 YHC7421님, 잘 해내리라 믿는 미숙이, 자료 제공에 웃음까지 함께 줬던 승룡이, 든든한 우리 8남매(고승진님, 송수혜님, 이성희님, 임희종님, 정은수님, 정지운님, 현병천님), 고시생의 걱정과 고민을 가장 잘 이해해준 친구들(가희, 미진이, 진영이, 수빈이..), 귀중한 가르침을 주신 은사님들, 오랜 기간 격려해주신 정혜경 사무관님, 함께 어려운 과정을 보낸 면접 스터디 식구들(원석님, 병철님, 병기님, 민선님, 화영님, 수정님) 모두 정말 고맙습니다. 평생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낮은 자세로 노력하는 공직자가 되겠습니다.